

■ <요약> 전자 금융 시대의 도래와 대응

- 기술 혁신에 따른 21세기 금융 산업의 변화

- 전자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기관들의 중개 및 결제 업무를 대체하여 기존 금융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
- 금융상품의 결합 및 신상품의 등장으로 기존의 상품별 업종 구분 무의미
-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으로 통합되면서 금융산업 자체의 정체성이 희박해짐
- 금융 조직의 단순한 대형화 추구보다는 기술과 규모의 적절한 조합 필요

- 전자금융시대에 대비한 금융 기관의 대응

- 전통적인 금융 영업 행태가 갖는 경쟁력을 파악하여 이를 유지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계층별 선호도를 면밀히 파악
-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기간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 기술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기술 변화에 대응한 경영 요소가 무엇이며 확보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필요

□ 정보기술 혁신과 21세기 금융 산업

- (기존 영업의 수익성 기반 약화) 전자 금융 시스템이 금융기관들의 중개 및 결제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기존 금융 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임
 -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자금 결제 및 중개 업무의 지역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독점적 수익 기반을 잠식함
 -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수료를 자율화도 금융기관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부추겨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본연의 업무였던 자금 중개 및 결제는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할 것임
 - 이미 주요 선진국 시중은행의 이자 및 수수료 수입 비중은 80년대 초반 70~80% 정도에서 90년대에는 50~70%로 축소

-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 등장) 전자 결제 시스템, 가상 공간에서의 금융 거래 등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임
 - 인터넷 뱅크, 스마트 카드 등이 새로운 금융 사업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
 - 이들 금융 사업은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점망이나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정보통신망에 의존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업종간 장벽 제거) 전자금융의 발전은 기존의 금융 상품을 종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상품 중심의 업종간 구분을 무의미하게 할 것임
 - 대출, 예금, 유가증권 등 세분화된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결합된 형태인 '일반적인 금융청구권(financial claims)', '재산청구권(claims on wealth)' 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금융상품간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면서 금융 업종은 상품의 종류보다는 대상 고객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지면서 유통업체의 구분과 유사해질 수도 있을 것임

- (금융 산업의 정체성 희박) 21세기 금융산업 발전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주도되면서 산업 자체의 정체성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 산업의 정체성은 업무의 시스템과 서비스가 다른 산업에 비해 어느 정도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그러나 21세기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으로 통합되면서 금융 산업이 갖는 차별성이 크게 축소될 것임
 - 이는 곧 지점망과 대인 접촉에 의한 거래를 바탕으로 한 기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전자금융시대에는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
 - 금융서비스가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종합적인 서비스의 한 종류로 전락할 경우에는 금융산업이라는 독자적인 구분이 사라질 수도 있음
- (기술과 규모의 다양한 조합) 21세기에 금융 관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에 단순한 거대화보다는 규모와 기술간의 적절한 결합이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임
- 21세기에 예견되는 정보기술의 다양한 발전으로 금융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성은 적용 기술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임
 - 예를 들어 미래형 은행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터넷 뱅크의 경우, 첨단 기술이 소규모의 인력 및 자본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임
 - 따라서 21세기에는 단순한 거대화보다 기술과 규모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여부가 경쟁력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유통업종의 구분과 유사해지는 21세기 금융산업의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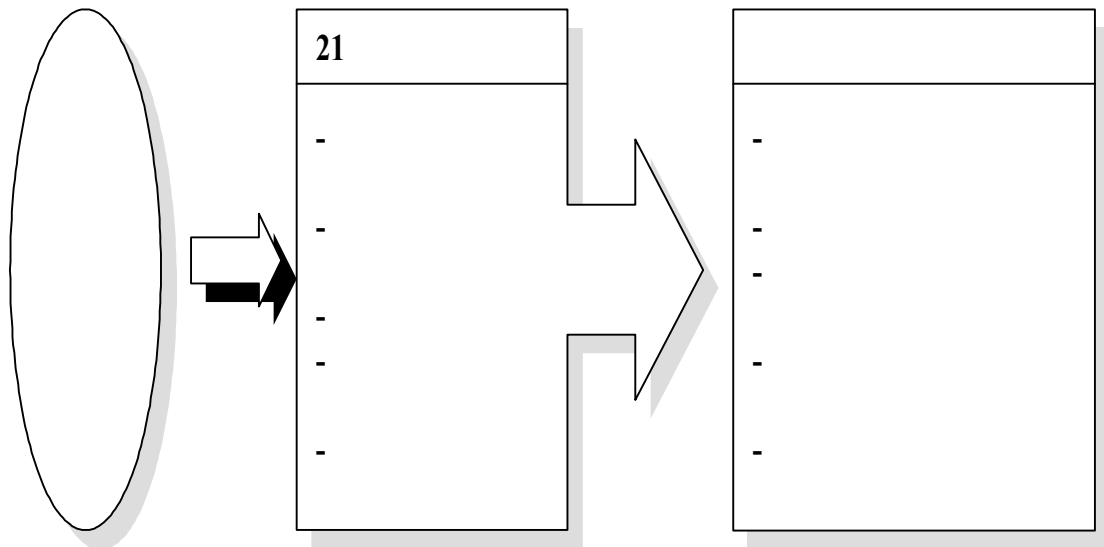
	내 용
종합서비스 금융기관	예금, 대출, 신탁, 증권, 첨단금융상품,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한편 생활 제안등 컨설팅 기능도 구비하여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
지역 금융기관	일정 지역에 특화하여 지역 니즈가 강한 상품·서비스 전반을 구비함
코뮤니티 금융기관	이용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일정 고객층의 이익에 기여
도매금융기관	고도의 금융기술, 증권 노하우를 보유하여 기업금융에 특화
고급 부띠끄 금융기관	상류층의 고급 상품, 카드 발행,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 고급·호화 이미지의 상품·서비스를 주로 취급
할인점 스타일	전통적인 예금·대출 업무이외의 서비스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점포판매를 중심으로 고수익 예금, 저리용자
편의점 스타일	가격, 수익률 등의 강점보다 영업체제, 영업시간, 절차,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편리함을 추구

□ 전자금융시대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대응

- 21세기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잠점을 살려라) 지점망, 대인 접촉에 의한 거래 등 전통적인 영업 행태의 특성 중 전자 금융 시대에도 부합될 수 있는 경쟁력 요인을 파악해야 함
-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라) 전자 금융 및 상거래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호도, 특히 고객 계층별 차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 (서비스를 기간별로 선택하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어떤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기술적인 개발과 적용을 수행하는 조직을 금융 기관 내부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아웃소싱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함
- (기술 외적 요인에 대해서도 준비하라) 기술 이외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조달해야되는 추가적인 경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확보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 21세기 금융 환경과 금융기관의 대응 >



■ 이태열 연구위원 tylee@hri.co.kr ☎724-4012